

충남교육청, 인공지능 데이터 리터러시 모델학교 전국 1위

전국 200개교 중 충남 20개교 운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용정 미래인재과장은 “충남교육

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통계적 소양을 키우고, 동시에 기능 위주의 학교 통계 교육을 넘어 실생활에 기반한 통계 및 수학교육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모델학교 대상으로 교사 연수를 비롯해 컨설팅을 수시로 진행하면서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일 과학교육원에서 모델학교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실생활 기반의 활동 중심 통계 수업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기법 등을 배우고 다양한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성원 기자

대전시교육청, 에듀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21년도 에듀원 스포츠클럽(Edu-One Sports club) 운영학교를 선정하고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하나가 되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시작하는 이 사업은 모든 학생, 교직원,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스포츠클럽을 매개로 서로 소통하고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대전시교육청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이 사업에는 총 15개교(초 3교, 중 8교, 고 4교)가 참여하게 되는데, 기존의 스포츠클럽이 학생들만 참여하는 방식이었다면 에듀원 스포츠클럽은 학교에서는 학생, 교직원들이 함께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가정에서는 가족 간기 체력지, 가족 스포츠 UCC 컨 테스트 등 가족 구성원 모두가 스포츠 활동을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동호인 및 전문가를 초청해 함께 교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친구, 교사, 가족들과 스포츠활동을 통해 친밀감을 높일 수 있으며, 가정에서는 스포츠활동이 매개체가 되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지역사회는 학생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건강한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교육청 이충열 체육예술건강과장은 “앞으로의 학교스포츠 클럽은 그 범위를 가정, 지역사회까지 확장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 육성을 위해 온 사회가 동참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며, “건강한 스포츠클럽 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준 기자

수원교육지원청, 쇼미더스쿨 개최

5월 30일까지 꿈의학교 이벤트 홈페이지 개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은 오는 30일까지 학생이 만들어 가는 꿈의학교 대상 ‘쇼미더스쿨’을 개최한다.

쇼미더스쿨은 학생이 만들어 가는 꿈의학교의 주체인 꿈쟁(학생)들이 주도해 본인의 꿈의학교에 대해 소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행사로 올해 6년 차를 맞이한다.

이번 행사는 수원지역 과학, 요리, 미술, 음악, 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로 이루어진 ‘학생이 만들어 가는 꿈의학교’ 88교 대상 꿈쟁 및 꿈지가 참여하게 된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쇼미더스쿨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이벤트 기간 동안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온라인 실시

간 교류 행사를 병행하여 진행한다.

경기꿈의학교 다큐멘터리 상영 및 꿈의학교 소개자료 게시, 사행시 짓기 이벤트를 열어 학생들의 꿈의학교 이해도를 높이고, 오는 29일에는 온라인 ZOOM을 활용해 꿈의학교 키워드가 담긴 방탈출 게임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형우 교육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꿈의학교를 접할 수 있게 해 꿈의학교 참여를 높이고,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의학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기획해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신안교육지원청, 보고 듣고 들기며 함께하는 우리

찾아가는 유아 문화예술체험 운영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홍)은 신안 관내 13개 병설유치원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찾아가는 유아 문화예술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유아 문화예술체험’은 6월까지 인형극, 마술, 풍선 마임, 버블공연 중 유치원별로 희망 신청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체험활동으로 유아의 감성 개발에 목적을 두고 기획됐다.

모든 문화예술체험은 회당 관람 인원을 유아 20명 내외로 한정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했고 재미있는 노래와 참여 유도도 유아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유아들의 정서적 감동과 또래와의 관계 축진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음악과 인형들의 움직임을 통해 즐거움을 전달했다.

비금초병설유치원 교사는 “우정과 사랑을 주제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해줘 즐거운 시간이었다. 코로나19로 답답해하던 아이들에게 꿈과 지혜를 키우는 인형극 공연을 마련해준 교육지원청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재홍 교육장은 “앞으로도 문화적으로 소외된 도서지역 유아들의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유아의 감성을 자극하고 개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성애 기자

항명선 논산시장, “논산-수원 간 상생협력 파트너십 통한 시너지 효과 기대”

사람 중심 논산-휴먼시티 수원, 연대와 협력 바탕으로 상생발전 이룰 것

민선5기부터 이어진 ‘사람중심 논산-휴먼시티 수원’의 끈끈한 인연이 ‘더 나은 주민의 삶을 위한 자치분권’이라는 공통의 목표로 가는 든든한 파트너십으로 이어지며,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상생발전의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 20일 논산시청 3층 회의실에서 논산시-수원시 간 자매도시 협약식을 갖고, 양도시 간 다방면에 걸친 상호교류를 바탕으로 공동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이 날 행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장, 김의정 수원시부시장 등 시 의원들이 동행했으며, 논산시와 수원시 간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고 보완하면서 상생협력을 통한 파트너십을 발휘할 것에 뜻을 모았다.

지난 해 9월 항명선 논산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은 두 도시 간 공통 가치와 발전전략이 유사함에 공감하고,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손 잡을 것을 약속했으며, 10월 수원시에서 논산시로 ‘국내 자매도시 결연 관련

의향서’를 발송한 후, 두 도시 시 의회가 동의하면서 성사에 이르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논산과 수원은 ‘사람중심’의 도시정책을 지향하는 공통의 정책적 기조를 공유하고 있어 함께 힘을 모을수록 상생발전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매결연을 계기로 지역 문화와 예술, 관광, 교육, 각종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논산시와 수원

시는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상생협력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앞으로 상생과 번영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여 논산시와 수원시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든든한 동반자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약을 바탕으로 논산시와 수원시는 지속적인 실무협의회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 및 기업인 역량강화, 관광사업 활성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등을 위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도시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공동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지철 기자

대전문화재단, ‘2021 들썩들썩 인 대전’진행

매주 토요일 집에서도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 감상

(재)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심규익)은 오는 22일부터 11월까지 ‘2021 들썩들썩 인 대전’을 진행한다. ‘들썩들썩 인 대전’은 공연예술 분야로 활동하는 전문예술 혹은 아마추어 단체(개인)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대전 시민의 문화 향유 및 대전의 문화도시 환경을 조성 하고자 매년 추진하는 길거리 공연이다.

음악, 전통, 연극, 무용 등 지난 4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총 84개 팀이 참여하며,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모든 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지역 내 안전이 확보된 거리에서 진행하거나 특별 제작된 오픈 스튜디오를 통해 대전문화재단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혹은 녹화방송)될 예정이며, 차량 진입이 가능한 곳은 LED 영상 차량을 이용해 관람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시간



댓글 작성, 리뷰 작성 등 시청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심규익 대표이사는 “정부 지침을 준수해 보다 안전한 공연문화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정민준 기자

확실한 정보·진실 된 뉴스를 전달하는 신문

“구독자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제보·구독·광고문의: 080-631-8114